

광주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다문화 동화책·잡지 '호심다락' 전달

비교과 프로그램 협업 운영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호심다락(湖心多樂)' 잡지와 다문화 동화책을 광주시 동구 가족센터와 광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사진>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출간된 '호심다락' 잡지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주대 학생들이 지역 기관과 협업을 통해 쌓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의 성과를 담고 있다.

다문화 동화책은 이주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광주대 대학 혁신사업단,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협업으로 진행된 결과물이다.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50여명과 광주대 한국어교육과, 아동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다문화 동화책을 만들었다. 동화책은 광주대 한국어교육과 김윤희·공하림 교수, 아동학과 진재섭 교수, 유아교육과 표정민 교수가 공동 감독했다.

동구 가족센터 신혜숙 센터장은 "동구 가족센터 이주 여성의 한국 문화 체험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광주대 비교과 교육지원센터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임채임 센터장은 "광주대 재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며 광주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한국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특강을 2023년 1학기에 교육혁신연구 프로그램에 통해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광주대 박경중 대학혁신사업단장은 "광주대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비교

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실무 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대 오선아 교육혁신연구원장은 "호심다락 잡지를 통해 광주대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를 지역 기관에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2023학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언어로 잡지를 출간해 지역 기관을 넘어 해외 대학에도 광주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광주문화기관협의회, 대표자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간사 기관 광주문화재단)는 지난 11일 광주문화재단에서 '2023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상반기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협의회 소속 16개 회원기관이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 논의, 협의회가 공동주관·후원하는 공동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년도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 운영 기본사업 2개(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회 특화사업 3개(문화공간 쉼터 워크숍, 조선통신사 부산 페어리드 참여, 직원 교류 연수회)를 의결하고, 기관별 문화활동

확산에 기여도가 큰 20여개 사업들은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후원, 연대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협의회 소속 16개 기관장과 임직원이 지난 6일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중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행사도 있었다.

간사기관이면서 협의회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황종년 대표이사는 "올해도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공동협력사업과 기관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매개로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사회복지회·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공헌사업 협약

대한사회복지회(회장 강대성)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사장 윤봉관)은 11일 지역 내 사회복지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 단체의 강점을 활용, 영·유아지원사업 및 한부모 자립지원 등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조직 간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시민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나눔과 연대·협동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설립된 아동복지전문 사회복지법인으로 영유아·아동·장애아동·청소년·한부모



가족·어르신 등 전국 25개 시설에서 소외이웃의 보나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부채춤 창시 무용가 김백봉 별세



'부채춤', '화관무' 등을 창시한 원로 무용가 김백봉(사진)이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민국예술원이 12일 밝혔다. 향년 97세.

20세기한국무용을 대표하는 전설적 무용가 최승희의 제자이자 동서로, 최승희의 월북 이후 한국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끈 산중인이다.

1927년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14살이던 1941년 일본 도쿄에 있는 최승희무용연구소 문하생으로 들어가 이듬해 무용수로 데뷔했다.

1954년 첫선을 보인 '부채춤'은 1968년 멕시코올림피아에서 군무로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1992년 명작무로 지명됐으며 2014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교화분과, 불우수용자 기부금 지원



광주교도소(최규철 소장)는 12일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교화분과 및 박종관 신임 교화분과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불우수용자 지원을 위한 현금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증받는 행사를 가졌다. <광주교도소 제공>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55 닥터 365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00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비밀의 여자 스페셜	15 푸리가 식사교실(재) 4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12	00 KBS 뉴스 12	5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00 12 MBC 뉴스 25 조선번호사(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모범택시 2(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20 스튜디오 K(재)		00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3	00 상상푸리가 푸다2 15 메탈카드봇 30 매직펀던트 대모험 45 프라몬 원정대	00 KBS 뉴스타임 10 내 비밀친구 짝미(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날(재)	
4	00 시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테마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15 뽀뽀마물의 수상한 이웃들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닥터 365 55 특집 바이시클 로드(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여자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홍길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노먼리 노아트	00 다큐 M	00 수확 없는 수확여행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00 방과 후 설렘 시즌2 소년판타지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KBS 뉴스라인	1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2	10 9중 시사극(재)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40 아이 러브 스포츠	00 문화콘서트 난장	0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타타와 쿠마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7:25 뽀뽀뽀 뽀로로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7:40 명탐정 피트3(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8:1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00 시용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8:4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00 한국의 돌레길
0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20 순간 포착, 야생
07:45 엄마 까투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19:50 숲이 그린 집(재)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명탐정 피트3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 어휘 편	<질란질란 저버-솔로러서 좋다>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20 똑똑 문해력 박사 - 속담과 관용어 편	21:30 한국기행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6:30 똑똑 문해력 박사 - 이야기 편	<붉은 맛있다 4부 돈병도의 봄>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극한직업
10:10 한국의 돌레길	17:00 페퍼 피그	22: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0:30 한국기행(재)	17:10 오쿠오쿠 내 새끼(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4월 13일 (음 윤2월 23일 辛丑)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불합되기도 전에 또 다른 것이 터지리라. 48년생 되로 주고 팔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60년생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2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나라. 84년생 길성이 완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96년생 신병을 정리하고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는다. 행운의 숫자 : 27, 89</p>	<p>午</p> <p>42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되리라. 54년생 확인해야 할 때가 되었다. 66년생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번 낫다. 78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90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02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46, 97</p>	<p>未</p> <p>43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55년생 서두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을 것이다. 67년생 단계를 밟아도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있다. 79년생 지혜가 많은 이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91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03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본다. 행운의 숫자 : 18, 60</p>
<p>丑</p> <p>37년생 변화하는 형세이니 신중히 대응하라. 49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시키리라. 61년생 미연에 조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73년생 개별적인 고찰이 옳은 판단을 낳으리라. 85년생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처리해야 할 일이 많겠다. 97년생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0, 54</p>	<p>申</p> <p>44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56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68년생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니라. 80년생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된다. 92년생 재판 사정을 차리하고 담당과에게 몰두하는 것이 좋다. 04년생 합심하여야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68</p>	<p>酉</p> <p>45년생 거친 풍랑 위의 일엽편주에 비유할 만하다. 57년생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라. 69년생 형국이 중도에 급변할 수 있는 판세이다. 81년생 통제가 반복된다면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93년생 승명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05년생 가장 최근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5, 50</p>
<p>寅</p> <p>39년생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51년생 거주장소만 되면 두말없이 청산하라. 63년생 여러 가지 결과물이 생기겠으나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75년생 상대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87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단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99년생 착각한다면 큰 자질이 빛어진다. 행운의 숫자 : 19, 95</p>	<p>辰</p> <p>40년생 중구적으로는 해결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52년생 급변하는 도량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64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76년생 본의 아니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88년생 비단옷을 입고 밭길을 걷는 격이로다. 00년생 흥정을 하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31, 61</p>	<p>巳</p> <p>41년생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53년생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다. 65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77년생 조급씩 행편이 나아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89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리라. 01년생 부귀가 한 몸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6, 72</p>